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성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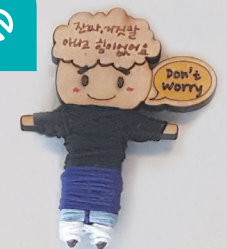
꿈꾸는 청소년, 사회적경제에 말을 걸다

sehub.net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성과보고서



꿈꾸는 청소년, 사회적경제에 말을 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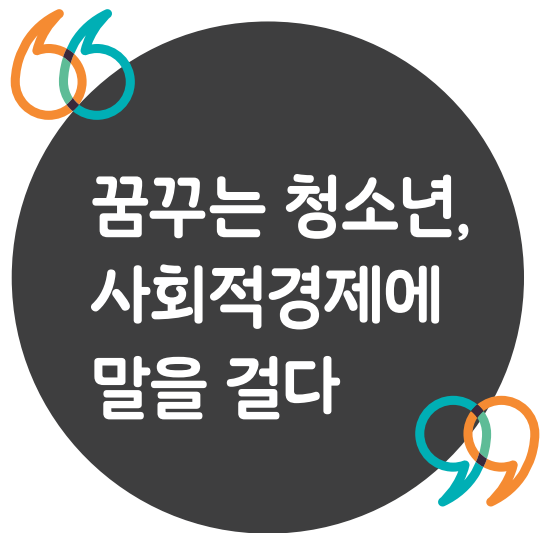


꿈꾸는 청소년,
사회적경제에
말을 걸다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성과보고서



CONTENTS

인사말	03
사업 들여다보기	04
청소년, SE로 놀자!	08
함께 만든 성과	14
민-관 협치 좌담	18
꿈꾸는 청소년, 사회적경제에 말을 걸다	
— STEP1 청소년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26
입문교육 소개	
입문교육 스토리	
— STEP2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36
체험교육 소개	
체험교육 현장스케치	
— STEP3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 실행 지원	46
'해냄' 프로젝트 소개	
'해냄' 프로젝트 도전기	
— STEP4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62
네트워크 구축 소개	
네트워크 현장을 가다	
네트워트를 만드는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70

인사말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꿈꾸며

서울시는 2016년 10월, 시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 문제를 민-관이 공동으로 해결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35개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정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제공하고 청소년 사회적경제인을 육성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전문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을 위해 협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은 청소년의 학습 단계를 고려하여, 신규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발굴, 청소년 사회적경제 심화교육,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1,7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학습하고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민-관 협력 단위를 구축해 올해의 다양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과 노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성과보고서』는 사업 소개에서부터 추진 체계, 성과, 세부 프로그램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는 민-관 주체들이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나침반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고, 협력한 과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함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업의 정성적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방안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성장은 서울시를 넘어 미래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입시교육에 내몰린 우리 사회 귀중한 자산인 청소년들이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이 작은 도움의 손길이 되고, 다양한 민-관 주체들의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서울시는 시의 역량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도시 문제를 민-관이 공동으로 해결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최종적으로 35개 의제 사업이 선정되었다.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은 그 가운데 하나로,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 사회적경제인을 육성하고자 설계되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을 위해

① 사회적경제 학습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기초교육 및 체험교육을 통한 청소년 사회적경제 예비 주체 발굴

② 청소년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 실행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심화 학습

③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의 사회적경제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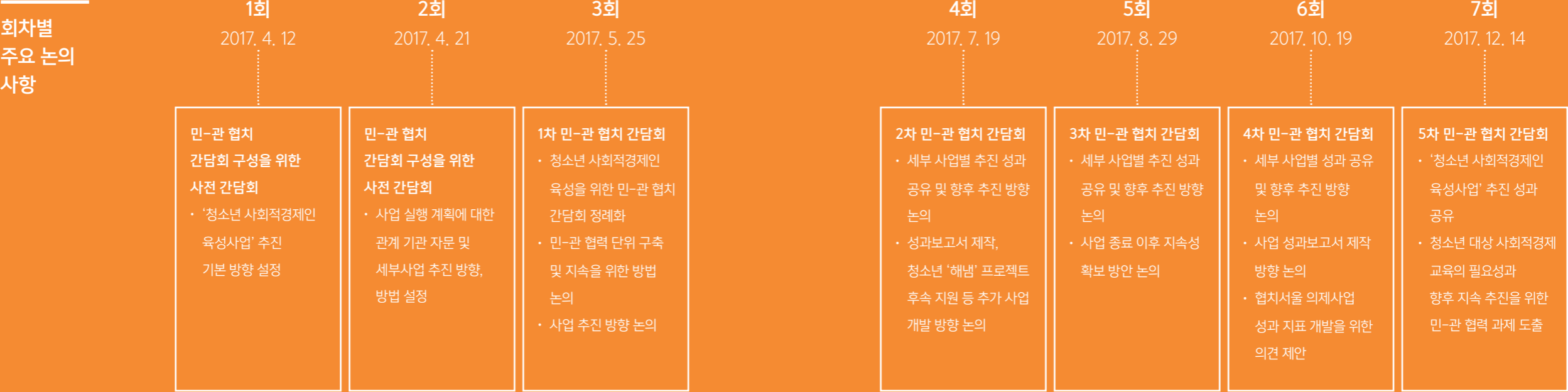
청소년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 실행 지원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청소년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적 토대 마련· 내용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입문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역량을 갖춘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을 선정하여 교육 진행· 성과 9개 기관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험적 이해도 제고· 내용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과정을 운영해, 청소년의 진로·직업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모색· 운영 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협동조합교육연구원· 성과 9개 학교 대상 25개 프로그램(공정무역, 환경, 사회공헌, 문화예술, 제조, 먹거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청소년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 경험 (학교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동아리 등)이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심화 학습 기회 제공· 내용 18개 실행팀을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전문가 멘토링 및 시제품/서비스 개발·검증 지원 등 모의 창업의 기회 제공· 운영 기관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성과 18개 팀에 모의 창업 기회 제공, 성과공유회를 통해 사업 성과 대내외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청년 및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간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 내용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행사 추진· 운영 기관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성과 네트워크 행사 194명 참여,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 마련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을 위한 민-관 협치 간담회

사업명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을 위한 민-관 협치 간담회
목적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향후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의 추진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고 참여하는 민-관 협력 단위 구축
범위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시 협치지원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교육청 및 청소년/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를 기본 구성으로, 각 사업별 추진 주체와 더불어 협력 주체(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가 참여

일정	월 1회 추진을 기본으로, 사업별 추진 경과에 따라 연간별 상시 회의 진행
성과	기획회의, 사전 간담회 포함 사업 기간 중 총 7회 민-관 협치 간담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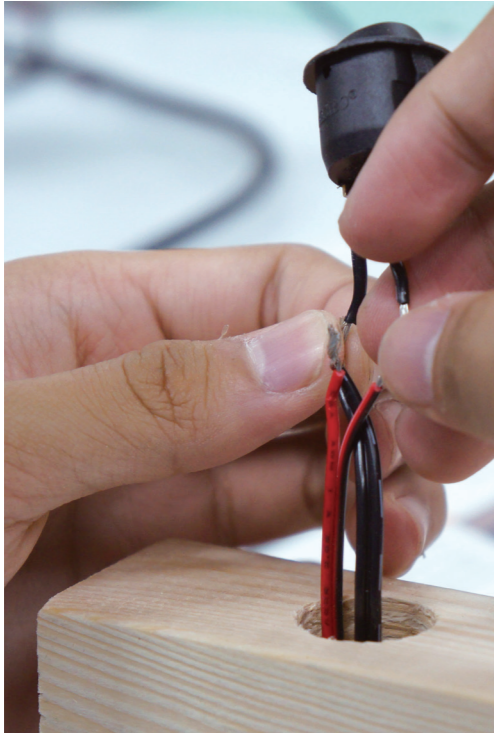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청 정환학, 김유진(사회적경제담당관 지역협동팀), 오재현(노동정책담당관 노사협력팀 협치지원관)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유경(기획실장), 인성환(기획1팀장), 윤민혜(기획1팀) • 서울시교육청 강석찬(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담당) •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장이수(회장), 김영주(학교협동조합 전문가) •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이정은(협동조합교육연구원 기획부장)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박선숙(센터장) •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주수원(사무국장)
-----	--





청소년, SE로 놀자!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8개월의 기록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와 달리 청소년들은 새로운 영역에 대해 호기심을 드러냈고, 곧 다가올 자신의 진로에 사회적경제를 관심 영역으로 추가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가까운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양성한다는 마음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 사회적경제 관심을 가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또한 청소년들과의 만남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었다. 청소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학교, 자원봉사자 등 이번 사업에 함께 뜻을 모았던 주체들의 연결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냈는지 지난 8개월의 사진과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보자.



— “지금 몇 시간 교육 받은 아이들이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사회에 대해 배우고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체험해 본 아이들은 앞으로 삶에서 사회 문제나 불편함을 발견했을 때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SE로 놀자’는 나의 편리에서 우리의 편리를 지향하게 하고 청소년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교육인 것 같아요.”

옥지혜, 체험교육 대학생 자원봉사자,
대학연합 사회적경제 동아리 SEN 소속



—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친구들과 함께 계획하고 진행했어요. 해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 신나기만 한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거의 모든 과정에 의견이 나뉘고 다른 해법을 내놓기 일쑤였죠. 최대한 양보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면서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 참가 학생



—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힘을 모아 협동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근사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참여를 계기로 사회적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꾸준히 길러가길 바라요.”

박원순, 서울시장

— “‘해냄’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보고 청소년들이 ‘해냈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생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보는 경험을 통해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사회적 나눔을 실천해보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은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장이수,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대표



— “사회적경제를 이론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사회적기업가가 된다면 어떤 기업을 만들까’라는 주제로 팟캐스트를 만드니 참여도가 높았어요. 교육 전에 사회적경제에 대해 먼저 검색하고 공부하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으니까요. 학생들 반응도 좋고, 학교도 관심을 가지는 만큼,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되면 좋겠어요.”

강민기, 입문교육 참여기관 (주)모아스토리 대표



—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은 문제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협동이 촉진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협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앞으로의 청소년 교육에서는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획부터 논의 과정, 성과에 이르기까지 협동의 가치를 함께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유경,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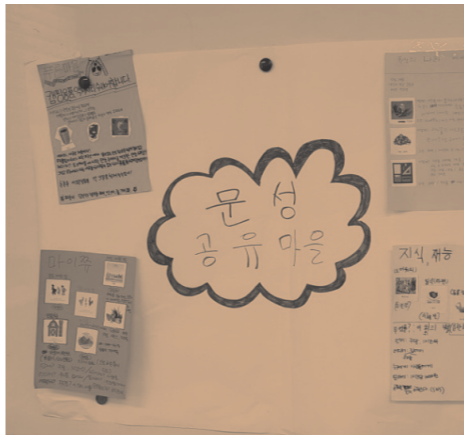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2017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7회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을 위한
민-관 협치 간담회 진행 횟수



총 7회에 걸쳐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민-관 주체들이
참여해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추진 방향
논의 및 점검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을 위해
협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수



21개

입문교육 9개, 체험교육 9개+1개,
'해냄' 프로젝트 1개, 청청넷 1개(운영기관 포함)

1,700여명



사회적경제를 학습한 청소년 수



청소년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추진 기간



247일

청소년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9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한 교육 과정



1,161명

교육 참여
청소년 수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 실행 지원



18팀

프로젝트 실행팀



10개

프로젝트 참가
초·중·고등학교 수



131명

프로젝트 참가
학생 수



30회

멘토링
진행 횟수



196명

성과공유회
참가자 수



9개

참여
학교 수



228명

청소년
참가자 수



9개

체험프로그램 진행
사회적경제기업 수



25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횟수



4.2점

체험교육
만족도



194명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행사 참가자 수



7개

네트워크 구축 참여 단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주)청년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민-관 협력으로 빛나다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선정되어 수행된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사업 마무리 후 한 자리에 모였다. 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사회적경제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주체들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의 대화를 지면으로 담아보았다.



일시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12시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밭다'



토론 서유경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실장

윤민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팀 매니저

김유진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역협동팀 주무관

오재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노사협력팀 협치지원관

강석찬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담당 주무관

장이수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이정은 사회협동조합 자바르떼 협동조합교육연구원 기획부장

청소년+ 사회적경제, 9개월을 돌아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단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한다.

윤민혜

윤민혜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은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짧은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단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인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저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이 좋은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함께 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주셨으면 한다. 오늘 주신 의견은 앞으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사업에 좋은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이수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에서는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 실행 지원을 맡았다.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바쁜 청소년들이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사업이었다. 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학교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이 컸다. 교육청의 도움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협치가 잘 이루어진 셈이다.

‘해냄’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서는 내부적으로 두 가지를 합의했다. 학생들이 내놓는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대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자는 것, 그리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좀 힘들어도 학생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실패도 분명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초·중학생은 문제를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반면 고등학생들은 계획서 작성부터 회계까지 직접 하도록 유도했다. 창업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판매하는 것으로만 인식하던 학생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책임과 조직 관리 등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막연했던 프로젝트들이 전문가들의 밀착 멘토링과 공통교육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1월에는 ‘해냄’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교육부 미래교육 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정은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는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가와 직접 만나 진로·직업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을 9회차에 걸쳐 진행했다. 기초 강의, 체험교육을 거쳐 마지막에는 인생 그래프를 그리며 자신이 만들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체험교육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학교 밖에서 직접 사회적경제 기업가가 있는 곳으로 와서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닌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었기에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다. 또한 대학생 사회적경제 연합동아리 학생들이 스태프로 참여했는데, 청소년들과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인지 청소년들과 스태프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이번 사업을 하면서 우리를 포함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과도 크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업들을 발견했고, 우리를 포함해 참여했던 기업들도 학생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자기 프로그램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며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이 끝난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교육 문의가 오고 있다. 이런 교육이 지속되면 좋겠다.



우리를 포함해 참여했던 기업들도
학생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자기
프로그램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며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지속되면
좋겠다.

이정은

사회적경제, 왜 청소년 교육에 주목해야 할까?

서유경 앞서 이번 사업을 진행해준 단체들이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여러 논의에 앞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청소년 사회적경제 육성을 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겠다. 입시 교육에 이미 찌든 청소년들이 갑자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란 사실상 어렵다. 이번 사업을 넘어,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이 가지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

장이수 이전에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주말 워크숍을 2년 간 진행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학생들이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사회적경제를 교육하는 게 맞나’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사회적경제 가치를 보편적인 수준에서라도 전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육을 해보니 청소년에 맞는 눈높이가 중요했다. 그냥 사회적경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필요한 노동법과 연결해서 하니 좋아했다. 이런 교육이 당장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자신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거나 종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때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으로의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들도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았으면 한다.

김유진 언젠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가정통신문에서 사회적경제 교육 공지를 봤다. 토요일 주말 신청 수업이었는데, 2시간씩 3개월 과정이었다. 주제도 어려운데 너무 장시간 수업 과정이라 부담이 되었다. 누구나 쉽고 가볍게 접하는, 학생들 발달 단계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윤민혜 동의한다. 이번 입문교육에서도 9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참여했는데 공통된 소감 중 하나가 이론 교육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을 때는 학생 모집이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학교나 학생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성을 살리고 체험, 탐방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바꾼 후 호응이 좋았다고 한다. 학생들의 연령대와 학습 욕구에 적합한 단계적 교육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누구나 쉽고 가볍게 접하는,
학생들 발달 단계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김유진

울타리를 넘어 민-관, 관-관 협치로 나가는 길

서유경 민-관 협치로 진행된 이번 사업의 명칭이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이다. 그럼에도 고민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청소년기에 '사회적경제인 육성'이라는 높은 목표를 세우는게 적합한가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한다. 청소년기에 또래들과 함께 팀을 이뤄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솔루션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협동'을 배울 수 있다. 그런 과정 자체가 사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사회적경제인 체험교육이나 창업도 꼭 판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과 사회적경제를 연결하는 적절한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봤으면 한다. 또한 학교별 단위로만 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학교 간 경계를 넘어선 협업들이 시도되면 좋겠다.



'해냄'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학교를
넘어선 협업들이 이루어졌다.

장이수

장이수 이번에 진행한 '해냄'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학교를 넘어선 협업들이 이루어졌다. '금사빠(금북사회적협동조합에 빠지다)' 팀은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지만 현재 다니는 중학교는 대부분 다르다. 그래서 또 다른 시너지가 났다. 4개 팀을 배출한 신천초등학교의 경우 팀 내 졸업을 앞둔 6학년 친구들이 함께 있어 이후 이 친구들이 중학교에 가면 다른 학교들 간의 교류로 이어질거라 기대한다. 또한 신천초등학교의 한 팀은 계획 당시에는 물건 판매로 돈을 벌면 게임기 구매 등에 사용할거라 했지만 나중에는 수익금을 지자체 모금함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변화에 감동해 신천초등학교 측에서도 사회적경제 육성에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서유경 좋은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아 반갑다.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류하며 '다른 친구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청소년들이 단순히 우리 반 문제가 아니라 내 옆 동네, 좀 더 시야를 넓혀 글로벌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직접 학교와 소통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고민을 듣고 싶다.

강석찬 '해냄' 프로젝트의 경우, 올해 사업을 참고해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직접 진행해볼 예정이다. 2월에 프로젝트 진행 의지가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학교가 정해지면, 3월에 기본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아직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에
학교들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우선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할 것 같다.

강석찬

사업에 앞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학교 교사,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한다. 아직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에 학교들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우선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할 것 같다. 그게 또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인 것 같다.

담당자로서 아쉬운 건 부족한 인력과 부서 간 협치다. 현재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또 여러 부서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데 부서 간 협력이 쉽지 않다.

서유경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은 특히 청소년들의 진로와도 연결되어 있기에 이벤트 식의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도 지속화를 위한 사업을 고민하신다니 감사하다.

김유진 부서 간 협치라든지 진로와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연 초 우리 사업 시작이 늦어졌던 것도 청소년 교육 전문 부서가 서울시 내 따로 있기에 그 부서와 서로 역할에 대해 논의가 길어졌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정책 부서가 이러한 사업을 맡는 게 더 지속가능하면서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재현 교육청, 청소년과, 사회적경제과 등 서울시 내 청소년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여러 단위가 울타리를 넘어서 관-관 간의 협치가 사실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처럼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이고, 또 다른 협치 단위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협치가 권한과 책임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번 사업에서 우리는 서로 책임을 너무 나눠가져서 오히려 부담을 준 게 아닌가 미안하기도 하다. 서울시나 교육청, 민간 단체 모두가 서로 일정도 다르고, 사업 방식도, 심지어 정산 방식도 다르다.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협치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성과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진단에서 새로 만든 성과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 효과, 공유 가치, 사회적 자본이 평가 기준이 된다. 사업 효과 면에서 협치를 중요시 했다. 이번 사업에서도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지표에 따라 평가해보면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통해 과거보다는 차별화된 효과를 얻었다고 보이며, 초기 목적에 맞게 어느정도 성과를 달성한 것 같다.



서울시 내 청소년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여러 단위가 울타리를 넘어서
관-관 간의 협치가 사실 필요하다.

오재현

긴 안목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 고민해야



우리 사업의 성과를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4~5년 후 더 긴 안목으로 보면 좋겠다.

서유경

서유경 이번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던 민-관의 협치가 잘 이루어졌다는데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봤으면 한다. 예로 1기 ‘해냄’ 프로젝트 참여 친구들이 내년에는 선배가 되어 2기 팀을 위해 멘토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듯 하다.

장이수 우리도 고민한 부분 중 하나다. 이전에도 졸업한 친구들, 학교 밖으로 나간 친구들이 와서 청소년들에게 수업하고 체험을 직접 운영하게 했고, 청년 창업가들을 연결하는 시도도 했다. 학교협동조합도 졸업한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비슷한 상황인데 앞으로 더 고민해볼 과제다.

서유경 ‘해냄’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를 보면서, 이 속에서 4~5년 후 “‘해냄’ 1기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친구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다시 등장할거라 기대하니 기분이 좋았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우리 사업의 성과를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4~5년 후 더 긴 안목으로 보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은 문제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협동이 촉진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협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협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에서는 교육의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기획부터 논의 과정, 그 성과와 과제에 이르기까지 협동의 가치를 함께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바쁘신데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중요한 미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성과보고서

꿈꾸는 청소년, 사회적경제에 말을 걸다

STEP 1

청소년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STEP 2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STEP 3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
실행 지원

STEP 4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STEP 4

STEP 3

STEP 2

STEP

1

청소년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서울시 소재 9개 교육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육 운영비 지원을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입문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학습 경험이 없는 1,161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경험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28 입문교육 소개

32 입문교육 스토리



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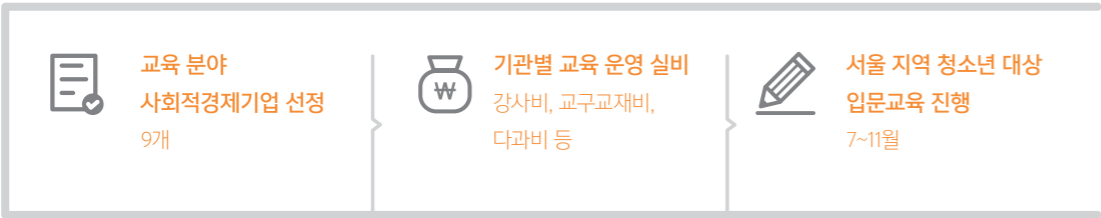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한 교육 과정



1,161명

교육 참여 청소년 수

청소년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기관/단체명	주요 교육내용	성과
(주)강동이이미	함께 걸어 좋은 길 : 사회적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의 나 강동구 지역 청년 활동가들이 청소년 교육 커리큘럼 및 교안 개발, 사회적경제 교육 강사로 활동	강동구 5개 기관 청소년 250명 참여
(재)아름다운커피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 공정무역 교육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접목한 신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서울시 28개 학교 청소년 423명 참여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협동으로 배우는 사회적경제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사회적경제 교육 과정 운영	동작구, 성북구 각 1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21명 참여
청소년 진로교육협동조합	알고 보면 쓸모 있는 공유경제(알쓸공경) 캠프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 교육, 체험, 모의 창업 등 운영 캠프	금천구, 강동구 2개 기관 청소년 187명 참여(연 인원)/공유경제 홍보 영상 6종, 9개 창업 아이디어 생산
우리랑가협동조합 (컨소시엄)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꿈수다-사회적경제 입문하기 사회적경제 관련 자기주도형 교육 과정으로 토크쇼 방식 강연 진행	금천구 1개 학교 6개 학급 청소년 126명 참여 (청소년 기획단 11명 운영)
(주)모아스토리	사회적경제 청소년 팟캐스트 만들기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팟캐스트를 기획·제작하고 송출하는 교육 과정 운영	4개 자치구 청소년 48명 참여, 9편의 팟캐스트 제작·송출
환경 인식 변화 교육커뮤니티 공유인	프로젝트101 사회적경제편, '사회적경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어보자!' 청소년이 거주하는 마을의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모의 창업 등 교육 과정 운영	성북구 2개 기관 청소년 50명 참여
은평교육문화 협동조합	살아있는 사회적경제 이야기 진로 직업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청소년 사회적경제 이해 토크쇼 '말하는대로' 등 운영	은평구 3개 학교 청소년 46명 참여
행복한교육실천 협동조합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 알기 '협동아리' 활동 협동조합 방식의 동아리 활동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적경제 기본 원리 체험	청소년 20명 참여



(주)강동
이이미

함께 걸어 좋은 길 : 사회적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의 나

- 강동구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 내 청년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안 개발(연속형, 특강형, 현장 체험형 3종)
- 강동구 청년 사회적경제 강사를 모집하고 교육해 지역 내 청년들 참여 기회 마련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초등학생은 사회적경제기업 탐방과 현장체험 중심의 활동을, 고등학생은 사회적경제기업 탐방과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진행(강명초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 강동구가 가족패션산업 사회적경제 특구인 점을 고려하여 가족공예 체험수업을 통한 진로 직업체험 진행(명일2동 마을속학교 '또래랑')



(재)
아름다운
커피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

-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후에는 '공정무역 캠페인 발표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이해도 증진
- 28개 학교 423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 중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쉬운 '공정무역'을 통해 사회적경제 학습
-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공정무역 실천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여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 가이드북'을 제작·배포 예정



협동조합
이로운
발전소

협동으로 배우는 사회적경제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초등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과정 운영
- 이론 수업, 게임, 퀴즈대회, 만들기 활동,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탐방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식을 활용해 협동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진행(협동조합 게임 '렛츠쿵', 관내 사회적기업 '삼성떡프린스' 견학 등)
- '사회란 무엇인지', '시장이란 무엇인지' 학습하고 협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탐색 후, 게임, 퀴즈대회,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등으로 협동의 가치를 심화 학습하고, 말미에 사회적기업 만들어보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



청소년
진로교육
협동조합

알고 보면 쓸모 있는 공유경제(알쓸공경) 캠프

- 금천구와 강동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유마을 만들기,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표, 공유기업 현장 견학, 공유경제 아이템으로 모의 창업하기 등 진행
- 공유기업(블랭크, 대륙서점, 놀자씨시, 리싸이클아트센터 등) 견학으로 직접 체험 기회 마련
- 공유경제 홍보 영상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작하도록 하여 흥미 유도



공유인

프로젝트101 사회적경제편, '사회적경제 콘텐츠크리에이터가 되어보자!'

- 청소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모의 창업하고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밀접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학습
- 청소년 사회적경제 학습 맞춤형 '자체 제작' 워크북, 3D프린팅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마켓 교구,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이러닝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성북구의 지역문제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아이디어 도출(성북구의 장애인 편견 및 문화생활 취약 문제를 해결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사회적기업, 성북구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을 돕는 앱서비스 '캐시스트릿' 사회적기업 등 6개 콘텐츠 제작)



우리랑가
협동조합
(컨소시엄)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꿈수다-사회적경제 입문하기

- 우리랑가협동조합, 신통방통교육협동조합, 사단법인문화예술교육협회 3개 단체 컨소시엄으로 진행
-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경제 학습을 위한 청소년 기획단('꿈수다PD')을 구성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멘토로 섭외해 강연을 듣고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주도형 교육 과정 운영
- 교육, 업사이클링, 3D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멘토들을 섭외해 토크쇼 방식의 강연 진행
- 대학생 서포터즈(서울대 및 서울교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활동하도록 지원 학습하고, 말미에 사회적기업 만들어보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



은평
교육문화
협동조합

살아있는 사회적경제 이야기

- 청소년 사회적경제 이해 토크쇼 '말하는대로', 청소년 사회적경제 모의 창업, 지역 내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 직업으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모색
- 은평구 관내 사회적경제 동아리 청소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연계해 교육 진행
- 사회적경제 이해 토크쇼 진행 후 가상의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 투자대회, 청소년 프리마켓 진행
- 청소년들이 직접 관내 축제와 프리마켓(꿈을 파는 청소년 프리마켓)에 참여
- 은평구 관내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력으로 교육 진행



(주)
모아스토리

사회적경제 청소년 팟캐스트 만들기

-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교육(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해 배우기)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팟캐스트 기획 및 제작·송출
- 사회적경제 관련 영상과 자료를 보고, 조사하고 싶거나 만들어보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내용을 직접 대본으로 만들어 녹음하고 팟캐스트로 제작해 송출
- 모의고사 무료 상담, 전쟁의 공포에 대해 알려주기, 한글 사용 장려 캠페인, 배리어프리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제작을 통해 탐색 후, 게임, 퀴즈대회,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등으로 협동의 가치를 심화 학습하고, 말미에 사회적기업 만들어보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



행복한
교육실천
협동조합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 알기 '협동아리' 활동

-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협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협동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들이 직접 법인을 모의 창업(법인 이름 짓기,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관과 규칙 제정, 브랜드 이름 짓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품 선정과 디자인, 광고와 포스터 제작, 상품 설명회 개최, 판매 계획 수립, 상품 유통 체험 등)을 해보고, 지역 사회적경제 장터에서 직접 만든 상품(수제 초콜릿)을 판매해 봄으로써 사회적경제 체감 기회 마련
- 서울시 각 지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20명의 청소년 참여, 7차시 25시간의 교육프로그램 진행

대광고등학교- (주)모아스토리가 함께 한

사회적경제 청소년 팟캐스트 만들기

- 1 사회적기업가에게 사회적경제 이론 교육을 먼저 들어요
- 2 내가 만들고 싶은 사회적경제 기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봐요
- 3 팟캐스트 제작이 가능하도록 아이디어를 실제 구성해봐요
- 4 팟캐스트 방송으로 녹음해요
- 5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송출하면 끝!

내가 만들고 싶은
사회적경제,
팟캐스트로 제작해보기

‘청소년 사회적경제 입문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팟캐스트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입문교육을 진행한 사회적경제기업 (주)모아스토리와 대광고등학교가 보낸 뜨거운 현장을 소개한다.

우리 팟캐스트 한번 만들어볼까?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팟캐스트 한번 들어볼까요?”

12월 19일(화) 오후 4시 경, 학교 수업을 끝마친 대광고등학교 학생 10여 명이 교실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귀를 쫓긋 세운다. 자신의 목소리가 컴퓨터에서 흘러나오자 학생들은 끼득끼득 웃기도 하고, 부끄럽다는 듯 책상에 얼굴을 파묻는다. 태어나서 난생 처음 경험한 팟캐스트 녹음 과정이 다들 싫지 않은 눈치다. 이 학교 1학년인 이성진 군은 컴퓨터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집중하느라 눈동자에 미동조차 없다. 모의고사 시험 풀이를 주제로 팟캐스트 녹음에 도전했지만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 군은 내내 아쉬워했다.

청소년 사회적경제 입문교육의 일환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주)모아스토리가 대광고등학교 학생들과 진행한 ‘사회적경제 청소년 팟캐스트 만들기’ 교육 장면이다. 강민기 (주)모아스토리 대표는 마지막 자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녹음본을 듣고 송출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3회차 교육을 마무리했다.

사회적경제, 더 쉽고 재미있게

(주)모아스토리는 동대문구 대광고등학교 외에도 용산구, 도봉구, 성북구 3개 구 청소년들에게도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팟캐스트 교육을 했다. 총 4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팟캐스트를 기획·제작한 후 송출하는 3회차에 걸친 교육 과정이다. 강민기 (주)모아스토리 대표는 팟캐스트가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흥미 유발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중고 약기를 업사이클링해 그 판매 수익금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음악교육을 하겠다는 팀,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신발을 디자인·제작해주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들겠다는 팀도 있었어요. 자신이 기업의 일원인 것처럼 가상 인터뷰를 하는 등 녹음 방식도 다양했죠. 하나도 똑같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오히려 제가 놀랐어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에 입문하기 위한 기초 교육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교육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교육 운영 실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학습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고 확대했다는데 이번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

사회적경제를 이론으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내가 사회적기업가가 된다면, 어떤 기업을 만들까’라는 주제로 팟캐스트를 만드니 참여도가 높았어요. 교육 전에 먼저 검색하고 공부하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으니까요. 방송 장비를 교실로 가져와서 직접 녹음도 하고, 녹음한 걸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했더니 효과가 더 컸어요. 학생들 반응도 좋고, 학교도 관심을 가지는 만큼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되면 좋겠어요.



강민기 (주)모아스토리 대표

이성진 녹음기 앞에 섰을 때는 정말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지루하지 않을까’, ‘아무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마무리하는 잘 한 것 같아요. 원래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어서 진로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정세현 사실 저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팟캐스트 만들기’ 교육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분야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과 접목하면 돈도 벌고, 사회에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성진·정세현 대광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꿈수다-사회적경제 입문하기’ 진행한

(사)문화예술교육협회를 만나다

사회적경제 관련 자기주도형 교육 과정으로 토크쇼 방식의 강연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꿈수다’를 진행해 금천구 내 126명의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 (사)문화예술교육협회 김복녀 대표에게서 입문교육 진행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신 (사)문화예술교육협회(이하, 클레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클레이(CLAY, Creative Learning Art Youth)는 2007년 8월 뮤지컬계의 배우 및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비영리민간단체법인으로 출발했어요. 클레이의 본질처럼 무엇이든 창조하고 실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을 통한 인성 창의 감수성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교과 연계 뮤지컬 만들기 ‘북뮤지컬 모듈’을 연구 개발하여 공교육에 보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누미즘 운동(흥헌송 기억프로젝트)을 하고 있죠. 나누미즘은 개인의 재능을 깨우고 개발하도록 돕고,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이에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1대1 지속가능한 멘토링 사업인 ‘형동생 만들기’예요.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입문교육’에 참여한 계기가 궁금해요.

사회적경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입문교육에 참여한 사업명이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꿈수다(이하 꿈수다)’인데요, ‘꿈수다’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꿈수다’는 청소년이 스스로 꿈과 진로를 탐색하고 관심 분야의 직업인을 교실로 모셔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사회적경제 기업가 및 종사자들에게는 재능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회적경제 가치 분야를 찾아내고, 활동 중인 멘토를 만나는 ‘꿈수다 피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청소년들이 직접 멘토와 통화를 해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섭의를 했어요. 통화 전,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꿈수다를 설명하는 모습, 멘토가 흔쾌히 강연을 수락했을 때 스스로에게 놀라워하며 환호하는 모습...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한뼘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꿈수다’는 클레이뿐만 아니라 우리랑가협동조합, 신통방통교육협동조합 3개 단체가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는데 함께 하면서 도움이 되었나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하면서 각 단체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갈 수 있었어요. 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용도 풍성해졌고요.

교육 과정 설계도 학생기획단, 운영위원회,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업무를 나눠 각자 위치에서 도왔어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및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지원했고요. 서로 다르지만 함께했기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번 사업에 대해 평가해본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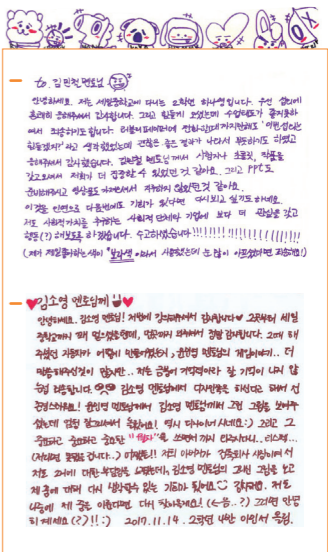
이번 사업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적경제 입문을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물론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지역 어른들이 조금 불안해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른들이 믿어주는 만큼 아이들도 해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 과정에서 그냥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작은 노하우라도 도움을 준다면 뭐든 아이들은 해낼 수 있을거예요.

무엇보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봐요. 각자의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서로 믿어주며 책임을 다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직접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으면 해요.



STEP 4

STEP 3

STEP

2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SE로 놀자!>’는 사회적경제 학습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초 교육, 분야별 진로 체험프로그램, 진로 연계 실습 등을 운영한 사업입니다.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차로 진행된 체험교육에는 9개 학교 228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공정무역, 환경, 사회공헌, 문화예술, 제조,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험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38 체험교육 소개
- 42 체험교육 현장스케치



9개

참여 학교 수



228명

청소년 참가자 수



9개

체험프로그램 진행
사회적경제기업 수



25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횟수




4.2점

체험교육 만족도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운영기관




협동조합교육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협동조합교육연구원은 예술 강사들이 모인 자바르떼가 기획·운영한 여러 문화 활동과 예술 교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협동조합 기초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오늘의 프로그램 소개 및 체험교육 선택




공동 교육

사회적경제 기초 강의 및 참여 기업 소개



체험프로그램

사회적경제기업 체험프로그램(3개 팀)



실습/평가

진로 연계 실습 '만들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

일시/회차/참여학교	학년/참석인원	참가 기업(분야)	체험프로그램
9/7 1회 상암중학교	중1 27명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공정무역) 마을기술센터핸즈(문화예술/제조) 마을무지개(먹거리/다문화)	역할 게임으로 배우는 공정무역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9/26 2회 동도중학교	중1 37명	아름다운커피(공정무역) 마을기술센터핸즈(문화예술/제조) 마을무지개(먹거리/다문화)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9/27 3회 성산중학교	중1 23명	아름다운커피(공정무역) 금자동이(환경/사회공헌) 마을무지개(먹거리/다문화)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 장난감 재활용교실 '쓸모'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10/13 4회 경성중학교	중3 37명	아름다운커피(공정무역) 마을기술센터핸즈(문화예술/제조) 마을무지개(먹거리/다문화)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10/19 5회 중암중학교	중1 23명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공정무역) 마을기술센터핸즈(문화예술/제조) 마을무지개(먹거리/다문화)	역할 게임으로 배우는 공정무역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10/27 6회 송문중학교	중1 28명	팝업놀이터(환경/사회공헌) 마을기술센터핸즈(문화예술/제조) 마을무지개(먹거리/다문화)	업사이클 팝업북 만들기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11/15 7회 대안학교 꽃피는학교	고1~고3 22명	터치포곳(환경/사회공헌) 마을기술센터핸즈(문화예술/제조) 히든북(문화예술)	그린솔루션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책으로 떠나는 동심의 세계
11/23 8회 대안학교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중1~고3 9명	마을기술센터핸즈(문화예술/제조)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11/29 9회 대안학교 공간만들레	중1~고3 22명	터치포곳(환경/사회공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문화예술/제조) 아름다운커피(공정무역)	업사이클의 이해 및 제품 만들기 업사이클 USB 스피커 만들기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



1회
상암중학교

일시 2017년 9월 7일(목) 9:30~15:00
장소 서울혁신센터 2층 모두모임방 1, 2
대상 상암중학교 1학년 27명 참가

- 체험프로그램**
-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역할 게임으로 배우는 공정무역
 - 마을기술센터핸즈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 마을무지개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 **공정무역을 알게 되고 직접 먹어도 보고 거래도 해서 이해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상암중학교 참여 학생



2회
동도중학교

일시 2017년 9월 26일(화) 9:30~15:00
장소 서울혁신센터 2층 모두모임방 1, 2
대상 동도중학교 1학년 37명 참가

- 체험프로그램**
- 아름다운커피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
 - 마을기술센터핸즈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 마을무지개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 **재미있는 체험도 하고 선생님께서 설명도 잘해주셔서 사회적경제가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동도중학교 참여 학생



3회
성산중학교

일시 2017년 9월 27일(수) 9:30~15:00
장소 서울혁신센터 2층 모두모임방 1, 2
대상 성산중학교 1학년 23명 참가

- 체험프로그램**
- 아름다운커피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
 - 금자동이 장난감 재활용교실 '쓸모'
 - 마을무지개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 **학생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유용해 보여서 그런 기회를 받는 학생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오명유, 참여 스태프/대학연합사회적경제동아리 SEN 소속



4회
경성중학교

일시 2017년 10월 13일(수) 9:30~15:00

장소 서울혁신센터 2층 모두모임방 1

대상 경성중학교 3학년 37명 참가

체험프로그램

- 아름다운커피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
- 마을기술센터핸즈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 마을무지개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하던 학생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정혜빈, 참여 스탭/대학연합사회적경제동아리 SEN 소속



5회
중암중학교

일시 2017년 10월 19일(목) 9:30~15:00

장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

대상 중암중학교 1학년 23명 참가

체험프로그램

-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역할 게임으로 배우는 공정무역
- 마을기술센터핸즈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 마을무지개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 **‘공정무역’이라는 말을 어렵게 느끼던 중학생들과 함께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 깊었어요.**

이승희,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강사



6회
송문중학교

일시 2017년 10월 27일(금) 9:30~15:00

장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

대상 송문중학교 1학년 28명 참가

체험프로그램

- 팝업놀이터 업사이클 팝업북 만들기
- 마을기술센터핸즈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 마을무지개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오감으로 배우는 다문화 수업

☞ **시간이 짧아 깊이 있는 설명은 부족했지만 에너지를 적게 쓰는 스탠드를 만들어 본 건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정해원, 마을기술센터핸즈 강사



7회
꽃피는학교

일시 2017년 11월 15일(수) 9:30~15:00

장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

대상 꽃피는학교 청소년 22명 참가

체험프로그램

- 터치포굿 그린 솔루션
- 마을기술센터핸즈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 히든북 책으로 떠나는 동심의 세계

☞ **더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꽃피는학교 참여 학생



8회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일시 2017년 11월 23일(목) 11:00~15:30

장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

대상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청소년 9명 참가

체험프로그램

- 마을기술센터핸즈 적정기술 LED 스탠드 만들기

☞ **‘나의 편리’에서 ‘우리의 편리’를 지향하게 하고 청소년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교육이었어요.**

육지혜, 참여 스탭/대학연합사회적경제동아리 SEN 소속



9회
공간민들레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1:00~15:30

장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

대상 공간민들레 청소년 22명 참가

체험프로그램

- 터치포굿 업사이클의 이해 및 제품 만들기
-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업사이클 나만의 USB 스피커 만들기
- 아름다운커피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

☞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고, 공동을 위한 기업인 ‘사회적기업’을 알게되어서 좋았어요.** 공간민들레 참여 학생



우리는 SE로 놀고 배운다



“전선이 잘 붙어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에요. 노트북이 없으면 핸드폰 충전기를 이용해 할 수 있고요. 보조 배터리를 꺼서 쓸 수도 있어요. 인두기 처음 사용한 친구들도 많은데 오늘 작업을 잘 마무리 한 듯해요. 집에 가서 잘 사용해주세요.”

11월 29일(수) 늦은 오후, 서울혁신파크 기술동 2층에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두 테이블로 나뉘져 'USB 스피커 만들기'에 한창이다. 평소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 이어폰 선, 케이블 등을 USB 스피커로 재탄생시키는 체험교육이다.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나온 강사들의 설명 아래, 청소년들은 글루건으로 스피커를 만들고, 인두기로 납땜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USB 스피커 만들기에 푹 빠졌다. 이날 교육을 들은 박상아 공간민들레 청소년 회원은 “평소 접하지 않던 걸 만드는 과정이 재밌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가 진행한 이날 교육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최한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SE로 놀자>'의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사회적경제 학습 경험이 없는 33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은 체험교육 마지막 차수로 공간민들레 소속의 청소년 및 교사 28명이 참여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청년청 안내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든 도시락 점심을 먹고,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협동조합교육연구원 신재걸 원장이 들려주는 '사회적경제의 이해' 강의를 들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3곳의 체험행사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는 'USB 스피커 만들기'를, 리사이클링 사회적기업인 '터치포곳'은 업사이클링의 이해와 사례, 북극곰 보드게임을 통해 생활 속 낭비되는 에너지와 자원 찾아보기, 화장품 샘플 포장재 자투리를 활용해 필통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커피'는 OX 퀴즈로 알아보는 공정무역,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법, 공정무역 제품 체험으로 공정무역 코코아 만들기과 공정무역 초콜릿·코코아·커피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체험교육은 청소년이 직접 사회적경제와 자신의 진로를 연계해보는 실습인 '나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계획 세우기'로 마무리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후 30대를 맞았을 때 어떤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들고 싶은가'라는 가정 하에 자신의 장점과 단점, 성공을 위해 준비할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이었다.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 여행, 먹거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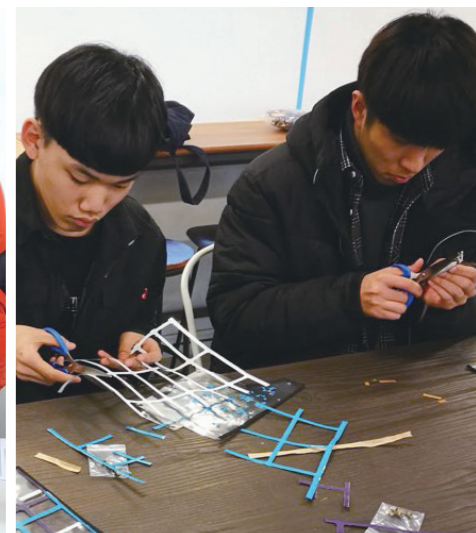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USB 스피커 만들기



아름다운커피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



터치포곳
업사이클의 이해 및
제품 만들기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되길

윤홍설 공간민들레 교사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제안을 받고 수락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체험교육 참가 소식을 알린 후
학생들 반응은 어땠나요.

선생님도 체험교육을
들으셨나요.

학교로 돌아가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수업에
접목할 고민은 없나요.

서울시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A 오늘 제가 인솔해 온 학생들은 공간민들레가 운영하는 서울시의 '오디세이 학교(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에요. 여기에는 공교육을 받던 친구도 있고, 학교 밖 친구들도 있죠.

우리 배움터에서는 시민학 수업을 통해 민주주의, 정의 등에 대해 배워요. 이 수업이 사회적경제가 얘기하는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죠. 교사들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기에 논의를 통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사회적경제 개념이 학생들에게 크게 낯설 것 같지는 않지만 선택 교육이었던 공정무역, 적정기술, 리사이클링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는 생소한 주제라 학생들도 궁금해 했어요.

공정무역 수업을 들었는데, 저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되어 좋았어요. 학생들도 이번 기회로 공정무역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계기가 된 듯해요. 반면 아쉬운 점은 사회적경제 개념이 어렵기에, 비슷한 또래의 청년층이 참여해 생생한 사례를 직접 들려주거나, 이번 체험교육에 자원 봉사자로 참여한 대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공감대가 더 컸을 것 같아요.

교사회 내에서 사회적경제 수업과 연결시켜 보자는 의견도 있기에 접점을 찾아보고 싶어요. 요즘 학교 내에서 청소년 협동조합 운영 사례도 많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교육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접했으면 해요. 또한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기반과 지원도 필요해요.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박상아&강병조 공간민들레 청소년 회원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어땠나요.

한창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인데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되었나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쉬운 부분들을 꼽는다면요.

만약 본인이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을 기획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하고 싶나요.

A **박상아(이하 박)** 저는 공간민들레 청소년 회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뿌리 과정에 있는 19세 박상아입니다.

강병조(이하 강) 저는 보성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오디세이 학교'를 통해 1년 간 공간민들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17세 강병조입니다.

강 강의 듣고 체험도 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어렵게나마 알게 된 것 같아요.

박 저는 오기 전에 기대가 좀 있었어요. 수업 들으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게 된 건 좋았는데 좀 어려웠어요. 선택 수업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의 버려지는 제품으로 'USB 스피커 만들기'를 들었는데, 평소에 접하지 않던 내용이라 재밌었어요.

강 새로운 분야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었어요.

박 저도 새로운 걸 알게 된 점은 좋았어요. 지금 당장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나중에 정보 차 좋을 듯해요.

강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보통 한 가지 분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긴 호흡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어요.

박 아직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 아이디어를 내는 게 어려웠어요.

강 이론 강의 보다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진행 방식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과 비슷한 세대의 강사를 초대한다거나...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리니까요. 공간민들레에서는 시민학 수업을 12차 시에 걸쳐서 해요. 그 안에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직접 현장 방문도 하고... 사회적경제 교육도 그렇게 좀 더 긴 호흡으로 진행하면 좋겠어요.

STEP 4

STEP

3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 실행 지원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과 실행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협동조합 학생 조합원, 사회적경제 동아리 등 청소년 모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창의성, 자율성, 해결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낸 18개 청소년 팀을 최종 선정하여 프로젝트 실행비 지원, 교육 및 멘토링 제공 등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멀게만 느껴졌던 ‘창업’의 경험을 제공받았으며,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계,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미래 세대 양성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 48 ‘해냄’ 프로젝트 소개
- 54 ‘해냄’ 프로젝트 도전기
 - 삼각산고등학교 ‘꽃피라’ 팀
 - 무학중학교 ‘금사빠’ 팀
 - 광신정산고등학교 ‘VOKS’ 팀
 - 광신정산고등학교 ‘다판다’ 팀



18팀

프로젝트 실행팀



10개

프로젝트 참가
초·중·고등학교 수



131명

프로젝트
참가 학생 수



3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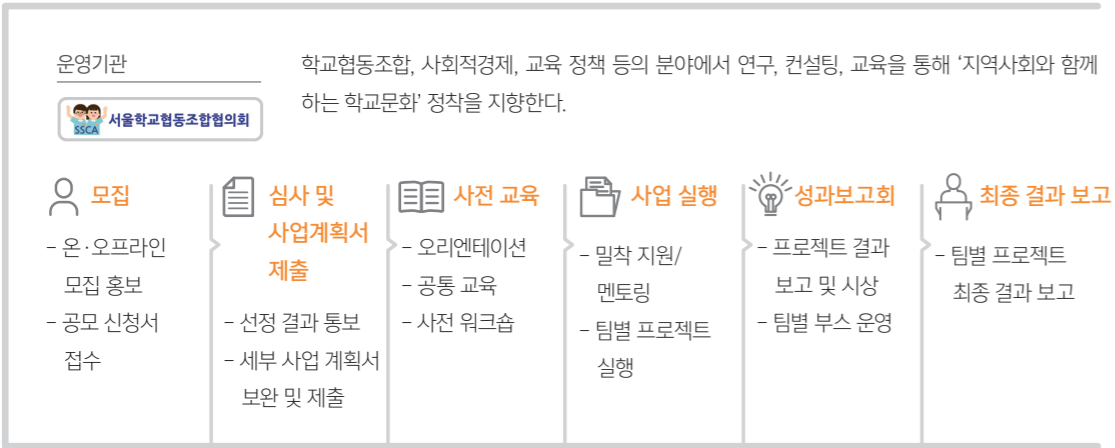
맞춤 멘토링
진행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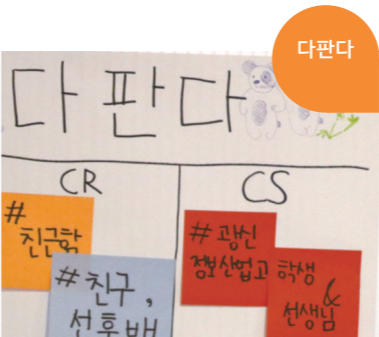
196명

성과공유회
참가자 수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팀명	학교	팀원	주요내용
광신의 아침	다판다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7명	학생들에게 아침 제공
스쿨 페스티벌	VOKS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10명	지역 행사 유튜브 등 생방송
제주도 일주일 살아보기	금사빠	금북초등학교	5명	제주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
사이클 리사이클	Come on Boys	성수공업고등학교	9명	자전거 리사이클링과 기증
지구를 지키는 보안관	에코피플	길음중학교	5명	천연 화장품 제작
얼룩말을 흰말로!	PURE	길음중학교	7명	신발 얼룩, 오염물 지우는 제품 개발
미쁘다	Jack777	영림중학교	6명	친환경 탈취제 제조
감정 배달부	선사임당	선사고등학교	15명	손편지와 친환경 상품 전달
꼬두람이	꼬두람이	선사중학교	7명	멸종 위기 동물 팔찌, 엽서 제작
햇빛 조절 블라인드	지조와 절개	삼성고등학교	5명	햇빛 양 조절 가능한 블라인드 개발
청춘 사진관	우리함께	독산고등학교	8명	어르신 추억 사진 남기기
그린하우스	꽃피라	삼각산고등학교	9명	그린하우스 제작, 홍보
페미니즘을 밝히다	권리를 밝히다: 권리등대	삼각산고등학교	8명	페미니즘 굿즈 판매 홍보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아별품	삼각산고등학교	5명	청으로 된 폐·재활용 만들기
비누/향수	비향	신천초등학교	6명	친환경, 비누 향수 만들기
장수풍뎡이, 사슴벌레 키우기	장풍 키우기	신천초등학교	7명	장수풍뎡이, 사슴벌레 키우기
글로벌 요리	자탈리한	신천초등학교	6명	각국 요리 만들고 먹기
골라먹는 재미 디지털 뷔페	캐릭터 디저트	신천초등학교	6명	캐릭터 디저트 판매 이벤트



다판다


<광신의 아침>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다판다' 팀은 조식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주먹밥을 판매해 건강한 아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다판다 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협동조합 사업을 새롭게 연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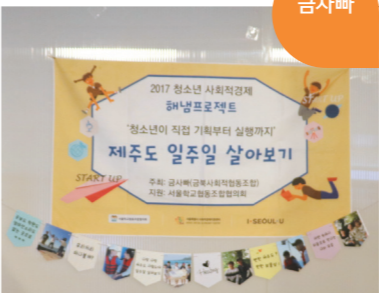
 **매주 아침 일찍 주먹밥을 판매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마무리 한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재미있었어요.** 최민서



VOKS


<스쿨 페스티벌>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VOKS' 팀은 학교와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촬영 편집하여 방송하는 <스쿨 페스티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창업 후 각 축제나 행사 등을 유튜브로 생방송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활동도 계획 중이다.

 **처음이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팀원들과 협동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걸 보고 뿌듯했어요.** 손미희



금사빠

<제주도 일주일 살아보기> 지역과 함께하는 여행을 컨셉으로 여행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정여행 등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금북초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 만든 '금사빠(금북사회적협동조합에 빠지다)' 팀은 실제 일주일 간 제주도에서 생활하며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기, 생태보호 캠페인 등을 했으며, 이후 사회적경제 자율 동아리 '생각 보따리'를 창설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제주도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적경제를 더 배우고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최연택



Come on Boys

<사이클 리사이클> 성수공업고등학교 'Come on Boys' 팀은 서울숲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정비하는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로 자원 재활용 및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지역사회 기부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자전거를 완전히 분해해서 새로 도장한 자전거를 직접 만든게 큰 보람이었어요.** 장치영



에코피플

<지구를 지키는 보안관> 김음중학교 '에코피플' 팀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유해 성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보습, 청결, 휴대하기 좋은 제품으로 천연 립밤 170개와 휴대용 스틱 비누 80개를 제작해서 학내 프리마켓, 외부 행사 등에서 판매했다. 향후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 수익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 우리가 만든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쓴다는 사실에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권대환



PURE

<얼룩말을 흰말로!> 김음중학교 'PURE' 팀은 학생들이 깨끗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얼룩을 제거하는 천연세제 만들기에도 도전했다. 천연탈취제 만들기에는 성공했으나 친환경 스프레이 세제 및 파라핀 코딩제 만들기는 실패해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

☞ 처음 시제품 개발에 실패해 아쉽기도 했지만 서로 협동하며 활동해 배운 것도 많았어요. 여준우



Jack777

<미쁘다> 영림중학교 'Jack777' 팀은 학교에서 나는 각종 냄새와 기준에 사용하는 탈취제의 인공 화학물 냄새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고자 친환경 탈취제를 제조했다. 탈취제 제조 방법은 물론 마케팅 교육도 받으며 판매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천연 탈취제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 소비 주체에서 경제 주체가 되어 창업의 경험을 한 건 제게 새로운 도전이며 경험이었어요. 김승현



선사임당

<감정 배달부> 선사고등학교의 '선사임당' 팀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사회에서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감정 배달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감정 배달부'는 감정 배달 편지지를 구매 후 편지를 써서 감정 우체통에 넣으면 그 메뉴에 해당하는 상품과 함께 편지를 전달해주는 프로젝트다. 주고받는 상품은 생협 상품을 사용해 친환경 상품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 편지 제작, 상품 선정 등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든걸 해나가다 보니 내가 많이 성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혜린



꼬두람이

<꼬두람이> 선사중학교 '꼬두람이' 팀은 구성원들이 직접 제작한 엽서, 스티커, 팔찌 등을 적극적으로 판매·홍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멸종 위기 동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궁극적으로는 멸종 위기 종의 개체수를 정상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시간적인 문제로 적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아쉬워요. 김채빈



지조와 절개

<햇빛 조절 블라인드> 삼성고등학교 '지조와 절개' 팀은 숙면이 필요한 현대인들을 위해 암막 커튼과 일반 커튼 2개를 하나로 결합해 빛의 양과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블라인드 개발에 나섰다. 제작 과정에서 공간적 문제, 제품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3D프린터를 이용한 듀얼 블라인드를 완성했다.

☞ 처음 아이디어가 중간에 바뀌면서 힘들었지만 뛰어난 협동심으로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정윤지

우리함께



<청춘 사진관> 홀로 살거나 저소득층인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독산고등학교 '우리함께' 팀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학생들의 관계 맺기 시간을 가져 정서적 돌봄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다.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기 좋은 사진보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이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창범

꽃피라



<그린하우스> 삼각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꽃피라' 팀은 플라스틱ボトル 그린하우스(Plastic Bottle Greenhouse)라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버려지는 페트병 1,600여 개를 재활용해 온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린하우스'를 제작했다.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가해 학교협동조합과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알려내는데 기여했다. 그린하우스를 만들었던 과정은 PDF와 책자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 **그린하우스 제작을 통해 환경 보호와 업사이클링 캠페인에 기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이태윤

권리등대



<페미니즘을 밝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목표로 하는 인권 자율 동아리인 삼각산고등학교 '권리등대' 팀은 직접 제작한 페미니즘 굿즈(Goods)를 인권포럼 캠페인 등 행사에서 판매했다. 향후 정식 동아리 개설로 성차별 및 성혐오 발언 방지 캠페인 등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

☞ **평소 생각만 했던 일들을 직접 더 구체화하고 고민하며 실행하는 과정이 정말 신나고 값졌어요.** 김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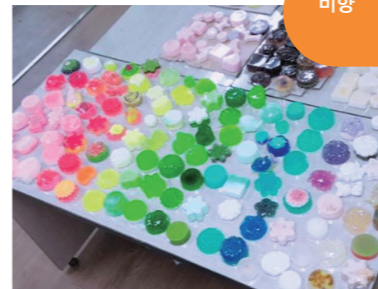
아별품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에 삼각산고등학교 '아별품' 팀은 폐 청바지를 수거해 리폼 방식으로 가방, 파우치를 제작하여 재판매함으로써 자원 순환의 가치를 전했다. 판매 수익금은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 단체에 기부해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 **창업 기회가 없는 청소년에게 좋은 경험이 된 이번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보람이 컸어요.** 박정호

비향



<비누/향수> 신천초등학교 '비향' 팀은 전문가에게 직접 친환경 비누 및 향수 만들기 교육을 받은 후 제작한 제품으로 모의 창업대회와 신천문화예술축제에 참여해 홍보하여 완판에 성공했다. 이후 비누를 더 만들어 학교 화장실과 급식실에 비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깨끗한 손 씻기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협동심이 강화되었고 위기 대응 방법을 배웠어요.** 강보경

장풍 키우기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키우기> 상대적으로 고가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유충을 성충으로 키워 저렴하게 판매하는 프로젝트로, 신천초등학교 '장풍 키우기' 팀은 프로젝트를 통해 곤충을 직접 키워봄으로써 정보를 수집하고 양육 과정의 느낌을 자세히 기록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고자 하였다. 성충 키트를 만들어 신천문화예술축제에서 판매해 생긴 수익금은 학교 병설유치원에 체험교육 자료로 기부하여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 **성충 키트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 자르고 붙여 만들었는데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해요.** 여복경

자탈리한



<글로벌 요리> 신천초등학교 '자탈리한' 팀은 각국 요리를 만들어 먹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로 함께 팀을 구성해 글로벌 요리인 야키소바, 브루스케타를 만들어 모의 창업 한마당 및 신천문화예술축제에 참가해 나라별 특색이 드러난 대표 음식을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 **창업에도 여러 단계의 준비가 필요하고 수익내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어 똑똑한 소비를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김지수

캐릭터 디저트



<골라먹는 재미 디저트 뷔페> 신천초등학교 '캐릭터 디저트' 팀은 기존의 화학 첨가물이 많은 디저트 제품이 건강에 좋지 않기에 몸에 좋은 친환경 디저트를 개발하여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큰 묶음으로 팔아 비싼 디저트 제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포장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눈길을 끌었다.

☞ **내 손으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서 더 즐거웠어요.** 이수빈

2017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 도전에 나섰던 팀들 중 네 팀의 좌충우돌 프로젝트 도전기를 지면에 담아보았다. 또한 팀들의 프로젝트 수행을 옆에서 도와준 멘토들의 한줄 소감도 함께 소개한다.

① 삼각산고등학교 ‘꽃피라’ 팀

페트병으로 온실 만들며 협동의 정신을 배우다!

글 이재경 삼각산고등학교 2학년

생소했던 협동조합과 친해지기

작년까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갓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도 정말 생소했다. 지금 다니는 삼각산고등학교에 들어서서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다. 그랬던 내가 학교 협동조합에 가입해 작년부터 지금까지 참 바쁘게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다.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다른 협동조합들도 만나며 진짜 ‘뭘 좀 배운다’라는 기분을 느꼈다. 물론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부분이 느껴진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불안할 때도 있다. 그래도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학교협동조합 활동이 정말 즐겁다는 것이다. 특히 내가 최근에 참여한 ‘해냄’ 프로젝트 활동은 정말 재미있었다.

환경과 기능까지 생각한 온실 프로젝트 ‘그린하우스’

‘해냄’ 프로젝트는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최·주관하는 프로젝트로, 청소년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아이디어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사업 예산 관리와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 ‘해냄’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천연 탈취제나 천연 비누 만들기, 자전거 고치기, 음식 판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우리 학교에서는 총 3팀이 참가했고, 그 중 우리 ‘꽃피라’ 팀이 진행한 건 ‘그린하우스 사업’이다.

‘그린하우스(Green House)’는 쉽게 말해서 온실이다. 보통 사람들은 온실하면 비닐하우스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비닐 온실이 아닌 페트병과 나무를 이용한 온실을 만들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수많은 페트병 중 재활용되는 페트병은 단 7% 뿐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 페트병을 이용해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고 기능까지 뛰어난 온실을 만들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는 목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린하우스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우리 협동조합의 전 이사장님이 영국 탐방을 다녀오면서부터다. 현재 영국의 많은 학교나 시설에서는 그린하우스를 온실과 도시 농업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페트병으로 그린하우스를 제작해 온실 제작과 교육 등에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 후 영국 협동조합 컨퍼런스를 통해 영국의 골번 하이 스쿨(Goulburn High School) 학생들에게 조언을 얻어 그린하우스 제작에 들어갔다.

2,500개의 페트병으로 만들어낸 희망

그린하우스를 만드는데 사용된 페트병은 약 2,500개였다. 우리는 이 많은 수의 페트병을 모으기 위해 페트병 수집 포스터도 학교에 붙이고, 직접 근처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돌아다녔다. 모은 페트병들은 위생을 위해 모두 물로 뽀뽀뽀 씻어 사용했다. 깨끗하게 씻은 페트병들을 크기에 맞게 자르고, 나무에 길이를 재서 구멍을 뚫고, 길이에 맞게 대나무를 잘라 페트병을 나무 사이에 끼우면 그린하우스의 한쪽 면이 완성된다. 이렇게 여러 개의 면을 만들어 이어붙이면 하나의 집, 바로 ‘그린하우스’가 완성된다. 그린하우스의 실제 제작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5개월 동안 9명이 동시에 모인 횟수는 한두 번 밖에 없다. 각자 방과후 또는 주말에 시간이 되면 나와서 페트병을 씻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렇게 꾸준히 완성한 그린하우스였다.

나에게 그린하우스는 단순한 업사이클링 온실이 아니다. 그린하우스를 통해 생각과 성향이 다른 9명이 모여 함께 집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에도 꽃이 피고, 우리 ‘꽃피라’ 팀 내부에도 꽃이 핀 것 같다. 우리의 도전을 시작으로 국내에도 그린하우스가 더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멋진 그린하우스가 궁금하다면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연락 바란다. 우리는 언제든지 꽃이 피길 기다리고 있다.



멘토TALK 강지훈

(주)더벨류 대표

이제는 시제품 개발의 단계(Prototyping)를 넘어, 비즈니스모델 구축의 단계(Business Modeling)로 가야할때입니다. ‘꽃피라’ 팀의 그린하우스가 필요한 핵심 고객이 누구일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② 무학중학교 '금사빠' 팀

제주도에서 일주일 살기가 우리에게 준 선물

글 구서윤 무학중학교 1학년



우리라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금북초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2017 서울시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 '우리라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고 '제주도 일주일 살아보기'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제주도 일주일 살아보기'는 단순히 제주도 관광지를 체험해 보는 것이 아닌 제주도 마을의 일원이 되어 살아보는 프로그램으로 '나도 제주도 사람', '자연을 누리다', '가치를 더하다'라는 세 가지의 컨셉으로 접근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답사활동으로 4박5일 간 제주도에 다녀왔다.

제주도 일주일 살기로 사람, 자연을 배우다

우리는 '제주도밖거리살리기협동조합'을 통해 한림읍 한림 3리에 있는 마을에 집을 빌리고 일주일 간 마을의 일원이 되어 살아보았다. 도시의 집들과는 달리, 이 마을의 모든 집들은 대문을 열고 생활했다. 마을 분들도 낯선 우리를 넉넉하고 포근한 인심으로 받아주었다. 손주 같은 우리를 귀엽게 봐주셨고, 우리 또한 마을 주민으로 함께 지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 집집마다 방문해 인사를 하고 마을을 둘러보며 마을 지도도 만들어 보고, 마을회관 앞 담을 고치는 일이나 감귤밭 일도 도우면서 우리 마을이라는 느낌으로 지냈다.

각자의 울타리 속에서만 살던 5명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생활 규칙을 만들고 장보고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일상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어른들에게서 벗어나면 마냥 자유로울 거라 기대했지만, 각자가 가진 개성이 부딪히고 일을 진행하는 속도가 방향도 계획과는 달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어느새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고, '나와 너' 보다는 '우리 함께'가 훨씬 쉽고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더불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에게 여러 경험을 선사했다. 제주도 바다뗏목인 '테우'에서 낚시를 하며 월척을 낚았을 때는 풍요로움과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 숨차게 오른 오름 정상에서 내려다 본 마을 풍경은 도시에서 볼 수 없던 푸르고 둥근 곡선의 미를 우리에게 선물했다. 노을에 붉게 물든 바닷물에 지친 발을 담그고 올라다 본 하늘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했다. 제주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지 외에도 세계에서 유일

하게 남방계 북방계 식물이 다 있다는 '곶자왈', 에메랄드 빛 바다의 작은 보물섬 '비양도', 신비로운 안개 길의 '사려니숲' 등에서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러 와서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와 폐기물들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바닷가와 오름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는데 반나절도 안 되어 100리터 쓰레기봉투가 가득찰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돌아다닌 후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비양도 항구에서 가득 찬 쓰레기봉투와 현수막을 들고 생태보호 캠페인을 했는데, 자연을 누릴 때 보다 훨씬 자연과 가까워진 마음이 들고 보람이 느껴졌다.

사회적경제 동아리로 새로운 꿈을 꾸다

'해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에게서는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심감'이 생겼다. 서로 다른 개성과 가치를 가진 우리가 모여 갈등하고 대립하는 과정 중에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협력하는 방법의 가치도 알게 되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언제나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이, 어른들의 몫이라 고만 생각했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우리 또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이곳 제주도에 와서 깨달았다. 아직 어린 우리가 큰 세상의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나 생각했었는데 나부터 변화하고 작은 것부터 바뀌어나가면 된다는 확신도 생겼다.

'해남' 프로젝트를 마친 후 사회적경제를 보다 깊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 중학교 친구들과 사회적경제 자율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아직 미약하고 어린 우리들이지만 미래 경제 사회의 주역으로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 '우리라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 나가고자 한다. 우리의 새로운 '해남'을 위해 도전을 시작한다.



멘토TALK 장지현

영림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어리게만 보이는 아이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나름의 규칙을 정해 지냈던 5일 간의 생활은 아이들을 스스로 자라게 하는 좋은 경험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공정여행의 가치까지 실천해 간 아이들이 대견스럽습니다.



③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VOKS' 팀

영상 동아리에서 창업까지 꿈꾸는 청소년들

글 안규희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2학년

영상 동아리를 만든다

나는 전부터 촬영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에 오면 꼭 방송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내가 입학했을 때는 학교 방송부가 폐지된 후였다. 입학 후 개학식, 졸업식 등의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유선으로 텔레비전에 화면을 연결하여 볼 때면 화질이 깨지고 매번 복잡해 보였다. 그러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전자 칠판이 교실에 들어서고부터는 무선으로 간편하게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화질이 깨지는 것은 여전히 했고, 직접 촬영을 하면서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중교 방송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영상에 관심 있는 팀원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었다. 유튜브(Youtube) 생방송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처음 접해보는 일이라 경험 및 장비 부족의 문제로 음향이 나오지 않는 등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이대로는 8명뿐인 작은 동아리가 발전하기 어려워보였다. 포기를 해야 하나 생각하던 와중에 '2017년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 그때는 우리 학교에 사회협동조합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던 터라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낯설기만 했다.

방송촬영 전문 동아리로 성장

그렇게 시작한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기에 실수를 반복했다. 예산 책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해냄'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우리는 빠르게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지원금으로 더 다양한 장비를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냄' 프로젝트는 우리 동아리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해냄' 프로젝트에서 지원 받은 금액으로 부족한 장비를 대여할 수 있게 되었고, 강사를 섭외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습해보며 미흡했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났다. 최근에는 명보 아트홀에서 개최한 <신 필름 예술 영화제>에서 섭외가 들어와 촬영을 나가기도 했다. 가수 함은정, 정아 그리고 배우 박해일, 홍수아, 박정민 등 유명 연예인들의 시상식 과정을 촬영하는 일이었는데, 미숙한 실력임에도 이런 흔치않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촬영에 임했다.

외부 촬영을 나가면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카메라 선에 걸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빈번하게 보았기에 우리는 그 선들을 사람들이 밟을 수 없는 공간에 밀어 넣거나 테이프로 선을 일일이 붙여 다치지 않게끔 안전에 각별히 주의했다. 이처럼 다양한 촬영을 나가다 보니 카메라를 다루는 것도 제법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촬영 중 카메라를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달리(Dolly)와 지미집(Jimmy Jib)보다 조금 작은 포타집 사용을 해보며 학교 입학식, 졸업식, 농구 중계, 학교 뉴스 제작뿐만 아니라 외부의 포럼, 축제, 시상식 등 범위를 넓히며 바쁘게 촬영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취약계층 영상 봉사활동 하고파

아직도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방송팀의 모습을 갖춘 듯하다. 촬영을 다녀온 후 유튜브에 하나씩 올라오는 결과물들을 볼 때마다 성취감을 느낀다. 이 영상들은 누구든 쉽게 접할 수 있고, 삭제하기 전까지는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어 언제든지 확인도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많은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주며 최선을 다해 협력해주었던 팀원들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선생님이 계셨기에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해냄' 프로젝트 덕분에 올해 나는 가장 바쁜 학교생활을 보냈다. 또 그만큼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들이 생겼다.

모든 과정을 경험해보며 훗날 창업까지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제는 '감히 어느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이런 경험들을 살려 졸업 후에도 자주 학교를 찾아 후배들을 도와주고, 취약계층의 활동들을 영상으로 무료 제작해 홍보해주고 봉사하는 일도 하고 싶다. 우리 팀은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생방송 촬영 일을 주로 해왔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기다리고 있겠다.



멘토TALK 박경화

선사고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

'VOKS'는 개인별 역량이 뛰어난 팀이었습니다. 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홍보 영상은 정말 빛났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됩니다.



④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다판다' 팀

건강한 조식 제공하며 사회적경제에 눈을 뜨다

글 강승재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2학년

빵 팔던 청소년, 매점 창설에 나서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던 학생이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니 시간을 그저 물 흘려보내듯이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바로 학교 선생님과 한 학생이 창업 동아리를 만들면서부터다.

처음 선생님이 “창업 자금 1만 원씩 모아서 아침에 빵을 팔아보는 활동을 해보면 어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조금 웃기도 했고 과연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2016년 8월부터 아침에 빵을 파는 ‘아빵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빵’ 경영의 네 가지 원칙은 ‘투명한 경영, 생각의 실천, 실패의 경험, 기업을 정신’이었다. 이러한 창업 정신을 밑바탕으로 우리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고 이 활동을 통해 전교생과도 소통을 이루어냈다.

2016년 말 우리는 ‘매점 창설’이라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렸다. 이를 위해 삼성고등학교에 여러 번 방문했다. 삼성고등학교는 2015년부터 학생들이 주도하여 매점을 만드는데 성공했기에 그 비법이 궁금했다. 여러 이야기를 들던 중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공동 소유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욕구와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를 의미했다. 처음에는 복잡할거 같기도 하고 낯선 단어에 겁도 나고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설렘도 있었다. 그렇게 또 한걸음 나가기 위해 우리는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해냄’ 프로젝트도 그 과정에서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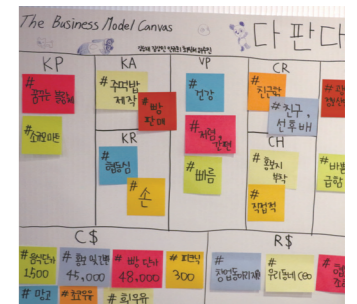
아침에 주먹밥밥 판매하는 <화목한 아침>

‘해냄’ 프로젝트는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최·주관하는 프로젝트로, 청소년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아이디어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사업 예산 관리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신청하는 것도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했다. 신청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새로운 활동과 도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말로 표현 못 할 만큼 기뻐했다.

‘해냄’ 프로젝트의 첫 활동은 불광역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되었다. 여러 학교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위해 모인데다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아서 놀랐다. 나는 ‘해냄’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팀장을 맡아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선생님들과 직원들과 같이 협동하여 각자의 역할도 정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주먹밥밥을 판매하는 <화목한 아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첫 활동은 시식회였다. 많이 서투르고 힘들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호응이 좋았고 성공적이었다. 또 활동을 통해 개선점을 하나하나 찾아 가서 협동을 하고, 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활동하다 보니 이제는 단순한 창업 동아리가 아니라 개개인에 책임과 권리가 부여되는 조직이 되었고, 사회적협동조합 가입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단어였지만 ‘해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와 공존하는 존재가 되었다.

사회적경제와 친해질 수 있었던 연결고리

작년에는 빵을 파는 활동을 통해 전교생과 소통을 했다면, 올해는 ‘해냄’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구성원들과의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다. 이렇게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하면서 각각 다른 아이디어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해냄’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와 친해질 수 있었던 연결고리와 같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프로젝트에 정말 감사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과 기회를 펼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멘토TALK 이미애

영림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사업비 전체 예산안의 지출과 잔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 장부를 만들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성실한 지출결의서 작성과 매 주마다 계획을 세워 사업비 사용을 점검하고, 각자 맡은 일을 소홀하지 않는 그야말로 잘 협력하는 팀입니다.



STEP

4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은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의 협력으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이 교류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협동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여 청소년이 사회적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12월 27일 경희대학교에서는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행사인 ‘청소년과 청년, 사회적경제로 만나다’를 청년 조직과 함께 추진하여 194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로는 청년,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기자단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64 네트워크 구축 소개
- 65 네트워크 현장을 가다
- 68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들



194명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행사 참가자 수



7개

네트워크 구축 참여 단체


STEP 3

STEP 2

STEP 1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운영기관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전국 30여 대학에 설립되어 참여와 협동을 통해 스스로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는 협동조합이다.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이러한 대학 생활들의 정책, 사업, 교육,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행사명	청소년과 청년, 사회적경제로 만나다
행사 목적	서울시 협치사업인 '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교류의 장 마련
일시/장소	2017. 12. 27(수) 10:00~18:30/경희대학교
참가 대상	전국 학교협동조합(초·중·고·대학교) 학생 조합원, 청년협동조합 조합원, 관계자 등 194명
주최	서울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교육청,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주관/협력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준)청년협동조합연합회, 경희대생활협동조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공유 학교협동조합 활동 박람회· 교류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가치 나무 만들기 조별 토론· 협동 게임 학교협동조합 활동 빙고 게임 등· 지도 교사 교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방향· 네트워크 방향 연간 네트워크 제안, 청청넷 교류회



슈퍼 그웨잇~ 사회적경제로 하나된 청소년-청년 네트워크 현장



다른 세대와의 만남은 늘 설레면서도 긴장된다. 2017년 12월 27일 경희대학교에서는 가깝지만 먼 청소년과 청년 19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유는 단 하나!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다. 후끈후끈 젊음의 열기가 넘쳐났던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현장을 소개한다.

민-관이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장

12월 27일 오후, 경희대학교 학생회관 청운관이 하루종일 젊은 기운으로 들썩였다. 전국에서 모인 초·중·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 청소년 조합원들과 대학 생협 등 청년협동조합 조합원 19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다.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의 주제는 ‘청소년과 청년,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학교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겸한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더불어 청소년 사회적경제 주체인 학교협동조합과 청년협동조합 주체인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준)청년협동조합연합회, 경희대생활협동조합이 함께 준비에 손을 보탰다. 이두영 (준)청년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장과 김진아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학생이사가 공동 진행을 맡아 활동 공유(학교협동조합 활동 박람회), 교류(사회적 가치

청소년 참가자 말말말!

“아무래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 고등학생 협동조합들 간의 교류가 한정적이에요. 이런 행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다른 협동조합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보다 앞서 활동한 대학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협동조합도 청년 코디네이터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어 오늘 자리도 기대하고 왔어요.”

이재경,
삼각산고등학교 매점협동조합 학생이사

“대구에서 목공 및 비누 등을 제작 판매하는 협동조합 조합원이에요. 아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홍보나 네트워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과 청소년들 간의 교류를 통해 경험을 나누면 시너지가 더 커질 거라 믿어요.”

김건학,
대구방송통신고등학교 협동조합 조합원

“우리 학교는 협동조합이 없지만 오늘 행사에 참관하러 왔어요. 우리 학교가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지은 건물이라 매점을 만들기 어렵다고 해요. 협동조합 선배님들을 따로 만나서 조언을 듣고 싶어요.”

문경수,
수명고등학교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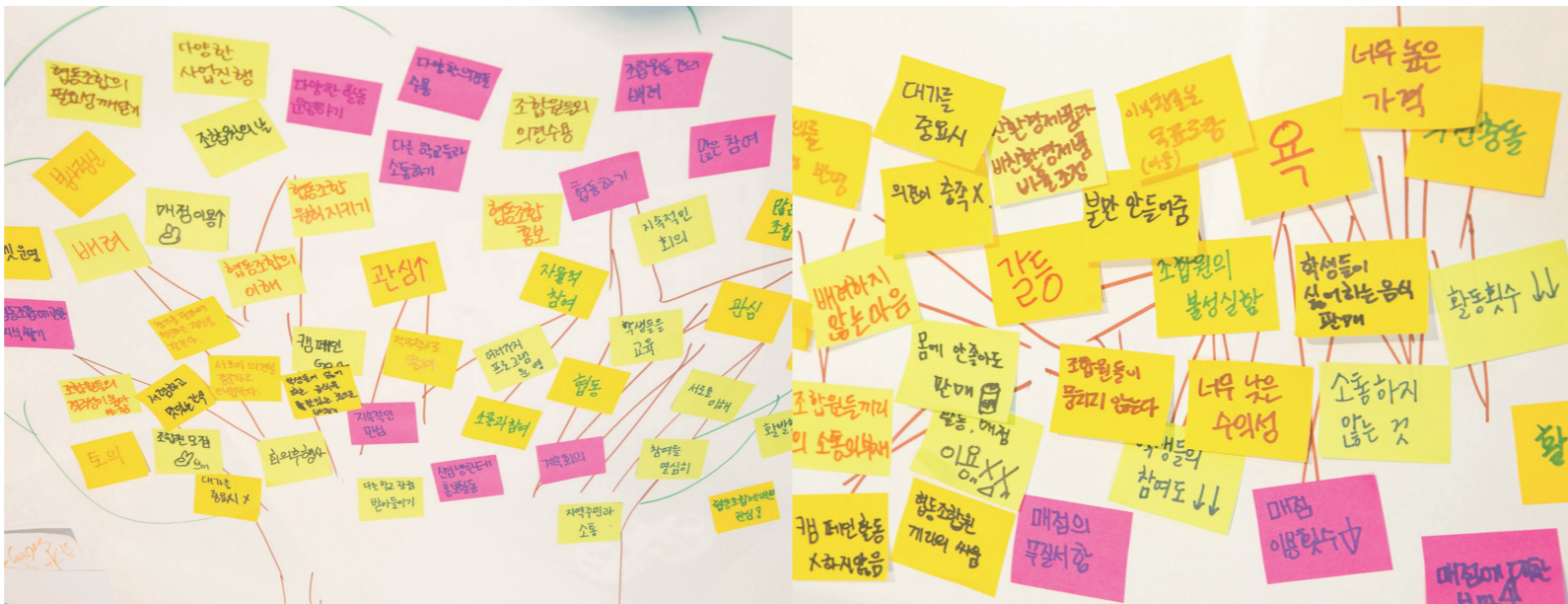


나무 만들기 조별 토론), 협동 게임(학교협동조합 활동 빙고게임) 등 여러 테마로 나뉜 행사를 이끌었다. 특히 이날 전체 네트워크 행사 촬영은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해남’ 프로젝트 참여팀인 ‘VOKS’가 맡아 눈길을 끌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경희대생활협동조합 김종원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연대와 협동의 정신을 일찍이 배우는 협동조합의 경험이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결망을 만드는 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진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나라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꿀 재목인 청소년 조합원들이 대학에 진학해서도 사회적경제를 이끌 일꾼으로 활동하길 바란다.”고 축하말을 전했다.

190여 명 교류하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약속

총 9개조로 나누어 행사에 참여한 190여 명의 참가자들은 첫 만남의 서머함을 없애기 위해 앞 사람의 얼굴을 그리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였기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이도 잠시, 참가자들의 공통분모인 학교협동조합 이야기가 나오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각 조에서는 대학생협 학생 조합원들과 (준)청년협동조합연합회 청년 조합원들이 조력자(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진행을 도왔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전국 20여 개 학교협동조합을 소개한 전시를 돌아보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포스트잇에 적었다. 학생들은 “포장은 어떻게 하나요?”, “남는 제품을 처리 방법은요?”, “방학 때는 어떻게 활동하나요?”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그렇게 모인 수천 장의 질문지는 140명이 한 번에 참여하는 빙고게임으로 이어졌다. 추첨을 통해 질문지를 뽑으면 학생들이 직접 질문에 답을 해 서로 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빙고게임 후에는 조별로 ‘사회적 가치 나무 그리기’ 시간이 이어졌다. 나무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토론을 통해 협동조합을 망하게 하는 요소를 뿌리 부분에 적고, 줄기 부분에는 흥하게 하는 요소를 적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망하게 하는 요소로 ‘이윤만 추구’, ‘갈등’, ‘이용률 저하’, ‘이건 무시’, ‘무관심’, ‘소극적 태도’, ‘독선’, ‘홍보 미흡’, ‘소통 부족’을, 흥하게 하는 요소는 ‘참여’, ‘배려’, ‘관심’, ‘이해’, ‘팀워크’, ‘협동’, ‘소통’, ‘책임’을 주로 꼽았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과 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청청넷)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참가자들은 청청넷을 통해 소식 공유와 교육, 홍보 등 공동 과제 수행으로 구성원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도모하고 서로의 활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하자는데 합의했다.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재목이 될 미래 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발걸음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쪽~

청년 참가자 말말말!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같다는 걸 확인한 자리예요. 앞으로도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들이 협동조합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박지혜,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조합원

“같은 조에 학교 매점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얘기로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풀 수 있었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 가더라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신효범,
북한산마을목공방



우리가 만들어갈 네트워크를 말하다

김진아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학생이사
이두영 (준)청년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장



Q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김진아** 송실대 대학생협 조합원이자,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학생이사로 활동 중인 김진아입니다.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연합회에서 인턴 활동을 하며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두영 청년협동조합연합회를 준비 중인 이두영입니다. 청년협동조합연합회는 다른 곳과 달리 청년 세대로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로, 여러 세대 중에서도 특히 사업 지지망이 없는 청년 협동조합들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더 많은 청년 협동조합이 탄생될 수 있는 교육과 내부 거래 활성화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자 해요. 내년 법인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김진아 이번 행사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어요. 이전까지는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하는 초·중·고 등학생, 대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청년들도 함께 한 자리라 더 특별했어요. 서로 간의 질문을 통해 궁금한 것들도 해소되고 새로운 사실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새로운 관계망이 생기길 바라며 준비했어요.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청년이
사회적경제로 만난다는
컨셉으로 진행되었어요.
준비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네요.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행사인 '청소년과 청년, 사회적경제로 만나다' 현장에서 김진아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학생이사와 이두영 (준)청년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장을 만났다. 실제 청년 세대인 이들에게서 청년과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당사자들 입장에서
청년-청소년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만나고 연결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네요.

청년-청소년 간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요.

이두영 준비단이었던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그리고 우리 단체(청년협동조합연합회) 모두 성격도 다르고 다루는 이슈도 달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단체에서는 행사 속에서 협동조합이 가진 순기능만이 아니라 힘든 점, 부정적인 면까지 함께 알리고자 노력했어요. 사회적경제라고 좋은 점만 알고 진입하면 나중에 실망도 크니까 현실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자 했어요.

이두영 물론 필요성이 크죠. 사회적경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교육받고 참여한 청소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성장해 간다면 성인이 된 후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가 단순히 모이는 것, 일회성 행사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갔으면 해요.

김진아 사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회적경제나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모르거나, 참여하더라도 학부모나 교사의 추천인 경우가 많아요. 앞서 활동한 청소년,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행사가 많아질수록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에 좋은 자극이 될거예요. 또한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김진아 우선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협동조합 기지단을 구성할 계획이에요. 전국의 소식을 모아 소식지를 만들어 서로 간의 활동을 공유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가 가진 가치를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이 없는 학교에도 배포하려고요.

이두영 네트워크는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여러 조직이 같이 하는 만큼 자발성, 필요에 의해 움직여야 지속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계뿐 아니라 청년과 청소년 간의 네트워크가 나중에는 청년과 기성세대와의 관계망을 만드는 데도 반면교사가 될 거라 기대해요.

이두영 개별 주체들의 니즈에 대해서도 고민해줬으면 해요. 대표자 보다는 직원들, 실제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좋은 네트워크 사업도 가능하다고 봐요.

김진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나누려면 사회적 환경도 중요해요.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 홍보하고 교육한다고 인식이 확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교육하고 협동조합 활동하는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하다보면 학생들도 더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꿈꾸는 청소년,
사회적경제에
말을 걸다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과
함께한 사람들



꿈꾸는 청소년,
SE로 놀자



기관명	대표자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	-----	------	----	-----

청소년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주)강동이이미	김정윤	blog.naver.com/ gdnetworker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3길 5, 써니빌2동 302호(암사동)	070-7178-9199
(재)아름다운커피	서경표	www.beutifulcoffee.org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4층 406호	02-743-1004
협동조합이로운발전소	김기영	www.soecoop.com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2층(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	070-8863-4489
청소년진로교육협동조합	이재원	www.youthcareer.co.kr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105-90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070-4415-7707
우리랑가협동조합	이영미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2층 201호(시흥동)	010-7567-2307
신통방통교육협동조합	권미자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2층 205호(시흥동)	010-9971-1978
문화예술교육협회	김복녀	www.clay.or.kr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619호	010-5413-1479
(주)모아스토리	강민기	www.facebook.com/ moastories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49-1, 2층(동자동)	02-703-4415
환경 인식 변화 교육커뮤니티 공유인	문주영	cafe.naver.com/biotreasure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51길 22, 양지마을사랑채 1층 푸른별환경도서관 내	010-7481-0626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임영은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7길 26-9(갑현동)	070-7761-6346
행복한교육실천협동조합	김선희	www.educoop.kr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 40길 34, 401(구의동)	010-9299-6492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이동근	www.arteplay.net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층 502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02-334-8209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협동조합교육연구원	신재걸	www.arteplay.net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층 502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02-334-8209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이강백	asiafairtrade.net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6층 605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070-4465-3340
마을기술센터헨즈	정해원	www.handz.or.kr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9동(적정기술랩) 2층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010-8188-9076
마을무지개	전명순	soyoun1124@hanmail.net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4층 401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070-7642-0227
금자동이	박준성	www.kumjadonge.co.kr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28동(녹번동, 서울혁신파크)	02-355-8943
아름다운커피	서경표	www.beautifulcoffee.com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88(와룡동, 2층, 3층)	02-743-1004
팝업놀이터	안선화	gwwhite@naver.com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4층 401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010-8533-9421
터치포굿	박미현	www.touch4good.com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80-34, 2층(대흥동)	02-6349-9006
히든북	박혜원	www.hiddenbook.co.kr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504호	070-7767-2239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www.altenergylab.co.kr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5, 19동(적정기술랩) 2층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02-6384-2253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 실행 지원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장이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크리에이티브랩 3층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070-4771-0128
-------------	-----	---	--	---------------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한국대학생 생활협동조합연합회	최장진	univcoop.or.kr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3호동 201호(동소문동1가)	02-324-6766
--------------------	-----	----------------	-------------------------------------	-------------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

청소년 사회적경제인 육성사업 성과보고서
꿈꾸는 청소년, 사회적경제에 말을 걸다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진행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1팀

취재/편집 라현윤

사진 이우기, 변지은

디자인/인쇄 (주)인디엔피 www.indnp.com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전화 02-353-3553

팩스 02-383-3533

홈페이지 sehub.net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콘텐츠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